

일제강점기 원산의 극장 원산관(元山館) 연구 : 지역의 문화적 거점 공간 생성과 활용을 중심으로

A Study of Wonsan-Theater in Wonsan on Japanese Colonial Era
: Focusing on the Founding and the Use of the Cultural Hub of Local Area

김남석 Kim Namseok*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cultural hub of local area and the artistic or commercial use of Wonsan-theater. The Wonsan-theater shows the cultural tension between 'Koreans conquered' and 'Japanese residing in Korea.' Wonsan-theater is the theater that was built on Wonsan 1927. Wonsan-theater was basically a theater, and was as a public hall. Construction subject of Wonsan-theater was native merchants lived in Wonsan on Japanese Colonial Era. Traders forces included No Gimam, Han Goonpil, Kim Kyeongjoon and Han Chihang. This merchants had built a theater and public hall for Koreans, and had configured the 'Wonsan City Operations Association' and the 'Corporation for Wonsan-theater'. Wonsan-theater was basically operating as space for commercial interests. Wonsan-theater was the theater as a space built for Koreans, these applications was diluted and eventually fell by commercial interests.

Keywords: Wonsan, Wonsan-Theater, Public Hall, Merchant, Na Woongyu, Bae Gooja

I. 서론

원산관을 비롯한 일부 함경도 소재 극장들은 '공회당 겸 극장'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등장했다. 일제강점기 '공(公)'의 개념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였기에 (황병주 2007, 5-44), 공회당의 공공성(공익성)은 조선인 사회에 극장 건립의 타당성을 부각시켰다. 조선인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공회당 겸 극장인 원산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문화적 인프라의 결핍과 공공 집회장의 필요를 절감하던 원산의 조선인들에게 이 공

간은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원산의 조선인들은 원산관 측의 운영에 강도 높은 불만을 피력하고, 공공연하게 새로운 공회당을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다. 원산에는 공회당이 없다며 원산관 측의 운영 방침에 항의하거나, '신공회당'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망각과 불만의 과정을 밝히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원산관을 건립한 이유와 원산관을 운영한 방식에 대해 이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Prof.,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Pukyong National Univ. | darkjdi@dreamwiz.com

해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원산관이 지니는 문화사적 의미와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원산관을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승희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승희(2010, 209-220)는 원산과 함흥, 청진의 극장을 묶어 그 공적 성격을 논구하며, 이러한 극장들이 '전통적인 도덕률과 자본주의 사회의 기부문화가 접점을 이루면서 지역사회의 상호 의존적인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한' 산물임을 밝혀냈다. 이민영(2012, 95-120) 역시 원산관의 주요 인물인 박영호의 초기 활동을 탐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박영호의 활동 거점이었던 원산관의 전속 극단에 대해 고찰했다. 두 선행 연구는 원산관의 공적 의미와 조선연극공장의 실체를 밝히는 주목할 만한 논점을 도출하였다. 이들의 논점은 본 논문의 주요한 참조 사항이 되었으며 분별력 있는 지침으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이 두 연구는 엄격하게 말하여 원산관에 대한 사실적 이해는 아니며, 원산관의 지역적 특성을 밝힌 논점을 획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산관의 역사적·문화적 실체를 보다 온전하게 이해하고 원산관의 운영 주체와 경영 방침을 밝혀내야 하는 본연의 목적이 충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본연적 필요에서 출발했으며, 원산관이 지니는 문화사적 사건을 수집하고 도시사적 관점을 도입하여 원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과정과 의의를 논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했다.

II. 원산관 건립과 이유

원산관 건립 사업은 '주식회사원산관'의 발족에서 비롯되었다.

주식회사원산관은 '원산시영회(元山市榮會: 동아일보 1926a)'¹⁾의 간선으로 발기된 단체로, '공회당겸용극장'으로 원산관을 설립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를 위한 첫 관문인 주식회사원산관의 창립총회가 1927년 5월 22일(오후 2시) 원산시영회 사무실에서 열렸고(임시의장 홍중희), 이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원산관 건립 계획과 조직 개편 사무를 숙의해 나갔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안을 논의했는데, 하나는 사업 설립 경과보고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대책 논의이며, 마지막 하나가 사업체(주식회사원산관) 직제 개편이었다. 직제 개편을 통해 사장에는 노기만(盧紀萬)이, 전무취체역에 한치항(韓致恒)이, 취체역에 김영근(金永根), 이춘하(李春河), 김경준(金景俊), 김이석(金利錫), 박창조(朴昌祚)가, 감사역에 남백우(南百祐), 유재준(劉裁俊), 한군필(韓君弼)이 선임되었다(조선일보 1927a). 향후 이들 중 상당수는 원산관의 주주로 참여하였다(동아일보 1931b).

주식회사원산관은 1927년 5월 25일부로 인가를 받았고,²⁾ 곧바로 연와조 2층 1동(煉瓦造 二層一棟)의 건물로 입찰 조건이 공시되었다(조선일보 1927a). 그러니까 원산관은 2층 형태의 벽돌 건(축)물 1개 동으로 입찰 공고되었고, 입찰 공고를 제시한 주체는 주식회사원산관(사장 노기만)이었다.

1. 설립 주체

원산은 조선을 대표하는 항구도시였고(이광희 2005, 285), '부(府)'의 행정구역 체계를 인정 받은 중점 육

1) 원산시영회는 1926년에 원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족한 단체로 임시의장 홍중희를 비롯하여, 한치항, 한군필, 김경준 등이 모두 평의원으로 소속되어 있었다. 원산시영회의 사무소는 원산객주조합 내에 위치했다.

2) 설립일자 1927년 5월 23일, 자본금 1만 6천 원, 용도 '극장 연극 및 활동사진, 연극 및 활동사진 기타 공중 집회를 위한 극장과 도구의 대부' (中村資良 1923).

성도시였지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조선인 주도의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 사실을 유감으로 여긴 원산의 유지들은 1927년부터 고심하여 ‘주식회사원산관’을 설립하였고, 1928년 음력 정월에 원산관 낙성식을 맞이할 수 있었다(동아일보 1928a). 극장 설립 계획에 나선 원산의 유지들은 한치항, 한군필, 김경준, 노기만 등의 인물로, 주로 주식회사원산관의 간부 진영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간부 진영 인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부 진영의 주요 인물로 한치항, 한군필, 김경준, 노기만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역 유지이자 상인 세력으로 1920년대 원산을 대표하는 명사들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산관은 상인이자 유지였던 이들의 입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전무취체역이자 주요 주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한치항은 1920년대부터 원산의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한 지역 명사로, 1920년 초반부터 ‘원산노동회’의 멤버이자 토목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고(동아일보 1923a), 1928년 9월에 발단이 된 원산총파업 시기(1929년 1~4월)에는 원산상업회의소[약칭 원산상의(元山商議)]의 대표자로 선출되면서 지명도를 점차 높여 나갔으며(매일신보 1929a), 1929년 9월에는 원산상의의 평의원 후보로 선임된 바 있다(동아일보 1929d). 주목되는 점은 한치항이 원산부 남촌동 37번지에 거주했으며, 그곳에서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조선일보 1929). 1931년 당시 원산관 인근에 있었다는 조춘식 상점 주소가 ‘남촌동 34번지’임을 감안한다면, 한치항 역시 원산관 부지 인근에서 이전부터 상업 활동을 하던 상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동아일보 1931j). 한치항이 원산상의의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하던 1920년대에서 1930년대로의 전환기에 원산관이 설립되었고, 한치항은 원산관 설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한군필은 한치항과 함께 원산에서 미곡상을 운영

하는 상인으로, 원산미곡상 조합에서 영향력을 발휘 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1929년 원산총파업 당시 원산미곡상 대표로 선임되어 사태의 진정과 피해 축소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매일신보 1929a). 한군필은 1920년대 초반 원산청년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사회의 지명한 인사로 발돋움했다. 한군필의 이력에는 원산의 상권 보호와 이익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과 진정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원산의 기반 시설(철도와 어항)을 확충하고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연합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 관련 시설과 장학시설 확대를 위한 자선사업도 나타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기실 분리되는 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문화적 제반 시설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당시 상인들의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김경준은 원산시영회의 창립 멤버였고(동아일보 1927a), 이후 부회장까지 역임한 바 있다(동아일보 1927c). 또한 그는 원산평의의 임원(동아일보 1927d), 원산시민협회 부회장(동아일보 1929a), 원산상의(상공회의소) 부회두(동아일보 1935d), 원산중앙기성회 이사(동아일보 1930a) 등을 역임하며,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단체의 책임자로 1920~1930년대에 활동한 바 있다. 본래 그는 원산부 상리2동에서 상점을 경영하는 상인이었다(동아일보 1927b). 그의 집은 원산부 명석동에 있었는데, 각종 단체의 회견 장소로 활용되곤 했다. 특히 1929년 원산총파업이 일어나자 그는 중재(조정위원)에 나섰는데(동아일보 1929b), 이러한 그의 역할은 그가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임을 증명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사장인 노기만 역시 원산관 건립이 발의되던 1927년에 원산객주조합(元山客主組合) 평의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원산객주조합은 원산부 상리(上里)에 소재하며, 1919년 3월에 관련 사업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익을 증진하며 상공업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설립된 단체였다(동아일보 1926b). 상리는 원산관과 가까운 지역으로, 원산관의 설립은 그와 객주조합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다.

이러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미곡상(노기만은 객주업)을 중심으로 하는 상인 계층이었다는 점(인천개항이십오년기념회 1908, 66-69; 오미일 1994, 196-197), 원산상의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거나 향후 맡게 될 인사라는 점, 그리고 원산관 인근 지역(남촌 혹은 상리)에서 상업·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원산의 도시 특성상 상인들이 사회유지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들은 원산이라는 도시에 공적 회합 장소인 공회당과 사적 오락의 장인 극장이 없음을 애석하게 여기고, 이러한 공간을 창출하는 데에 앞장 선 셈이다.

결론적으로 원산의 유지들은 원산이라는 도시 공간 내부에 집회와 회합을 열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했다. 1925년 상황을 보면 일본인촌 중정(仲町)에 공회당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공간을 상품진열관으로 활용한 기록도 있다(동아일보 1925b). 하지만 이웃 도시 함흥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본인 활용 공간을 대여하는 문제는 비용과 활용 범위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동아일보 1922). 함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흥지역의 상인들이 출자하여 동명극장을 상량하는 방법을 취했는데(동아일보 1923b), 원산 역시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지들이 동일한 방도를 취했다.

함흥의 상인들 못지않게 원산의 상인들도 공적 공간(공회당 겸 극장)의 건립에 적극적이었는데, 이것은 원산이라는 도시가 무역항으로 일찍부터 교역의 중심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이다(하원호 2005, 151-170). 인적 이동과 물동량의 증가로 상인들은 각종 상업 행위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했고, 이러한 조직이 회합할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요구되었다. 이러한

공간은 조선인 중심의 회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관심사를 다룰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했다. 실제로 원산관의 설립 주체들이 미곡상이나 이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산관에서 열린 ‘원산미곡총회’(동아일보 1928f)나 ‘원산어상조합총회(元山魚商組合總會: 동아일보 1929c)’ 등의 회합은 이러한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2. 입지 조건

원산의 유지들이 원산관의 부지로 선택한 장소는 과거 시장이 있던 곳이었다. 주소는 ‘원산부(元山府) 북촌동(北村洞) 75-12번지’(동아일보 1928c; 1930b)로, 이곳은 ‘전상시장(前市場)’ 터였다. 시장 터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원산관 주변에는 술집을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31년 자료를 참조하면, 원산관 주변은 가장 변화한 거리에 해당했다.

1930년까지 원산관의 주소는 일관되게 표기되었으나, 1931년 원산관의 주소지로 ‘원산부 남촌(南村) 원산관’ 혹은 ‘북촌동 원산관’ 등이 혼용되었다(동아일보 1935b). 원산관의 실제 주소는 변경되지 않았는데, 원산관의 위치를 표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남촌과 북촌의 거리가 가까워 주소 개념이 혼돈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원산부는 적전교(적전천)를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다. 적전교 북측 지역은 주로 일본인이 거주하는 북촌에 해당했고, 적전교 남측 지역은 주로 조선인이 거주하는 남촌에 해당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적전교(관다리: 동아일보 1936b) 이서(以西)에 위치한 북촌은 주동, 성동, 양지동 등을 끼고 있었으며, 본정이나 옥정 등의 일본식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북촌에는 일본인의 거주지 외에도 관공서가 자리 잡고 있어 도로와 하수

도 시설이 정비되어 있었던 반면, 남촌에는 주로 조선인이 살았던 관계로 도로와 하수도 시설이 열악했다.

원산관의 설립 주체가 조선인 상인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유지라고 할 때, 원산관은 조선인 밀집 지역인 남촌에 건설되어야 마땅했을 것이다. 하지만 남촌 지역은 도로와 하수 시설이 완비되지 못했고, 무엇보다 옛 시가에 가까운 곳이라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에 적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산관은 일부러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북촌동에 건립되었다. 비록 북촌동에 건립되었지만, 남촌동이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 상권과의 밀착된 형국이었다.

원산관 주변에는 ‘배순호 상점’,³⁾ ‘이삼현 포목상’ 등 조선인이 경영하는 상점이 즐비했으며, 이밖에도 인근에 ‘조춘식 상점(남촌동 34번지)’, ‘이종면 치과 의원’, ‘김성택 사택’, ‘김양범 상점’, ‘석화상점(石和商店)’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동아일보 1931). 또한 원산관 앞에는 찻집(동아일보 1935c)과, ‘금산여관(錦山旅館: 조선중앙일보 1933)’이라는 숙박시설이 위치하고 있었고, 멀리 않은 곳에 원산역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상점과 여관의 배치를 고려하고 당대인의 언급을 참조할 때, 원산관은 원산부의 중심에 자리 잡은 건물이었고, 옛 시장이 있었다는 자료를 참조할 때 원산관 주변은 상점들이 밀집한 지대였다. 1915~1923년 무렵에 원산부의 인구는 2만 2천 명(2만 2,413명) 정도였다. 원산은 외국인 거주자(특히 일본인과 중국인)가 많은 도시였다(일본인 비율 31.6%: 이광희 2005, 288). 개성좌가 인구 5만의 도시에 유일하게 존립했던 극장이었다고 할 때(고동환 2009, 341-344), 원산관은 상대적인 유효 인구수에서는 개성에 비해 뒤진다고 할 수 있으나, 인구 2만 2천 명의 도시에서 주목 받는 극장이라는 점은 불리한 조

건이 아니었다. 더구나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원산 인구는 4만 명 정도로 급증하여(조선일보 1930) 인적 기반이 대대적으로 확충되었다.

본래 원산관 건립 터에는 ‘상리시장(上里市場)’이 있었는데, 이 시장이 매표지로 옮겨가면서 지역의 유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바 있었다. 일제강점기 시장으로 인한 갈등은 주요한 지역문제가 되곤 했는데, 시장으로 인한 갈등 중에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은 ‘시장의 이전’이었다(조형근 2006, 334-336). 원산 역시 시장 이전으로 인해 관계자들의 갈등이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는데, 원산관 건립은 시장 이전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효과까지 고려한 사업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지역 유지들과 원산관 측은 건물의 신축을 통해 지역 경제와 유동 인구가 예년의 성세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을 공공연하게 내놓기까지 했다(조선일보 1927c).

3. 건립 시점과 관련 시설

1920~1930년대는 공회당 건립이 장려되는 시기였다. 주요 신문들은 공회당 건설을 역설했고, 이로 인해 각 지역사회는 공회당 건설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황병주 2010, 277-278). 전국 각지에서 공회당 건립을 위한 각종 방안이 마련되었고, 앞다투어 건립에 나서던 시기였다. 함경도에서는 원산과 함흥 이외에도 북청 등에서 공회당이 구상되었고, 이웃인 평안도의 진남포나 황해도의 안악 등도 공회당 건설이 화두가 되었으며, 멀리 떨어진 부산까지 공회당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도시가 없을 지경이었다. 당시 공회당은 일제의 공적 권력에 저항하는 조선인의 사적 권력의 형태를 지니기도 했다. 다시 말해 조선인을 중심으로 공회당을 건설하는 작업은 일제의 지배에

3) 배순호는 원산을 대표하는 지역 유지 중 한 사람으로, 차가인 조합 활동이나 지역 행사 준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음.

대항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조선인의 자본으로 공회당을 짓는 일은 조선인의 권익과 종족 보호를 위한 처사로 이해되기도 했다. 원산관의 건립 과정에서 이러한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설립 주체인 상인 세력은 조선인의 힘으로 원산관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담당했고, 이후 운영과 향유 역시 조선인의 몫으로 남았다. 따라서 건립 시점에 원산이 처한 환경적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원산에는 일본인 극장 유락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동아일보 1926c). 이 유락관에서 원산 부민 대회 등이 열린 바 있으나(동아일보 1928d), 기본적으로 일본인 극장이어서 조선인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에는 불편과 제약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상리(上里)에 동락좌(同樂座)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사용처를 살펴보면 원산부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본격적인 극장으로 보기 어려웠다(동아일보 1925a; 1925c). 그러던 차에 이웃 도시인 함흥에 ‘공회당 겸 극장’인 동명극장이 설립되었다(매일신보 1924). 동명극장의 창립 발의 과정을 보면, 일본인 극장 진사좌(眞砂座)의 대관료가 지나치게 비쌌기 때문에(하룻밤에 30~40원), 이에 부담을 느낀 함흥상업회 측이 소극장 대관을 포기하고, 공회당 겸 극장 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각 지역에서 조선인들은 일본인 극장의 대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극장 관련 주변 환경 요인은 여러모로 원산관의 건립을 자극하는 기제가 되었다.

원산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지들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보다는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서 원산시영회-원산관주식회사를 발족해 2층 연와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다. 원산관은 애초부터 극장과 공회당 겸용으로 설계되었는데, 이것은 복합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였다. 당시에 이미 극장이 공회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고 공회당

의 기능 중 하나가 연극 공연과 영화 상영이었다고 할 때, 공회당 겸 극장 설립 계획은 두 공간의 실질적인 중첩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다목적 용도의 결합을 도모하려는 건립 의도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실제 원산관은 극장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건축 당시부터 이에 맞는 공간 배치를 겨냥하고 있었다. 2층 1동 벽돌 건물로 입찰 공고되면서 도시 규모에 걸맞은 적정 크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공회당으로 사용하지만 사정에 따라 극장업이 가능하도록 2층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다락을 활용하여 연극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하는 공간을 애초부터 구비하고자 했다. 이러한 구조는 원산관이 합리적 용도 전환을 위해 준비된 건축물이었음을 알려준다.

4. 원산관 건립의 내포 이유

원산관의 설립 이유는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다. 일단 시대적 추이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1920~1930년대는 공회당 건설 붐이 일어난 시기로, 특히 지역에서는 공회당 건립이 근대화나 도시화 혹은 선진화의 척도로 인식되었다. 공회당이 없는 지역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곳으로 자인할 정도였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회당 건립을 추진하는 추세였다. 그러니 원산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원산부민들과 지역 유지들은 자신들의 도시에 공회당과 극장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더구나 원산은 일찍이 항구로 개항되면서 서구와 일본의 근대적 문물을 선구적으로 수용한 관문 도시였다. 이러한 원산부민들에게 공회당과 극장은 필수불가결한 도시 요건이 아닐 수 없었다.

다음으로, 설립 주체가 조선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자유롭게 반영할 공적 공간이 필요했는데, 원산관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축조되었다. 원산의 조

선인 여론이 이 공회당 건립에 대단히 우호적이었고, 건립 자본이 조선인 자본으로 충당되었으며, 그리고 건립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을 볼 때 오래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공회당과 극장이 일종의 상징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애관이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격 건축물이었고, 동양극장은 그 자체로 관광지였다. 1930년대 후반 개성좌의 추태함이 개성 시민들의 걱정거리가 되었던 것은 극장이 지나는 도시 건축물로서의 상징성을 대변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징이 되기 위해서는 입지 조건과 건축 시설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원산관의 운영 세력들은 원산의 상인 세력이었다. 이들은 원산의 상업적 중심에 원산관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반드시 조선인 주거지에 원산관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조선인 주거지가 일본인 중심지의 기반시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여기고, 일본인이 주로 거주하는 북촌동에 원산관을 건립했다. 남촌은 도로시설이 미비해서 하천을 끼고 있었던 원산관에는 불리한 입지였다. 그래서 원산관은 조선상인들의 합의와 노력으로 탄생했지만, 북촌에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입지 조건을 면밀히 고려하면, 북촌은 남촌과 잇닿아 있었으며 북촌 원산관 터는 이전에 상리 시장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었다. 그래서 원산관 주변에는 각종 상점이 즐비했는데, 시장이 이전하면서 이러한 상권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고, 상인들은 원산관 설립을 통해 상실된 경기를 되찾으려 했다는 정황이 강하게 포착된다.

원산관 주변에 있었던 조춘식 상점이 남촌동 34번지이고, 극장 설립 주체인 한치항의 주소가 남촌동 37번지였는데, 이러한 인근 주소를 통해 한치항이 자신의 상권에 원산관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상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공유된 인식이었다. 즉 상인들은 자신의 상점 근처에 원산관을 세우고 침체된 경기가 시장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조선인들에게 공회당과 극장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조선인들의 의견 수렴과 권익 보호, 종족 보존과 문화 향유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공간이었다. 따라서 원산관도 이러한 공익적 목적에 따라 건립이 추진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적 목적 이면에는 경기 부양과 이익 창출, 그리고 상권 강화라는 무시 못할 경제 논리도 내재되어 있었다. 더구나 192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원산은 북한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변화한 도시로 오히려 개성을 능가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고, 1930년대에 들어서면 함흥과 함께 동북선(東北鮮) 지역의 중심 도시로 기능하고 있었다(홍민 2012, 21-23). 많은 유동 인구와 거대한 물동량을 자랑하는 거점도시라는 특성으로 인해, 원산관 건립 계획은 경제성이 한층 강화된 형태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고, 공회당이라는 공익적 활용에 뒤따르는 적자를 충실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극장 기능이 강화되는 형태로 현시되었다고 하겠다.

III. 연극 · 영화사적 의의와 문화사적 맥락

원산관은 공회당인 동시에 극장이어야 했다. 공회당은 공적 회합의 장소이고, 극장 역시 집회와 교류 그리고 정보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적 공간이었다. 이호걸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극장이 하나의 '복합적인 미디어'로 기능했다고 주장했는데(이호걸 2010, 175), 원산관이 다양한 공연 행사와 예술적 전시를 통해 원산 지역의 복합 문화 공간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복합적 미디어로 기능하는 공간이어야 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복합적 미디어로서 지역문화의 장에 대한 필요성이 원산관의 창립을 유

도했다고 할 수 있다.

원산은 인구 2만 명(이후 4만 명으로 증가)의 대도시였고 행정구역상으로 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도시였다. 인구의 크기와 도시의 위상으로 볼 때 이러한 도시에 극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원산부민들에게 큰 결락감(缺落感)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역 유지들에 의해 극장 건립이 추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일반 공회당이 적자 재정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원산 지역에서 큰 부호의 거액 투자에 의한 공회당 설립 추진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식회사 형태의 자금 조달과 건립 방식은 원산의 실익과 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상인들이 주도한 계획답게, 공회당의 적자 재정을 메우기 위한 극장 겸업 역시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상인들이 건립을 주도하면서 상업적·경제적 운영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

1. 원산 지역 문화의 자생처

원산관 개관은 원산 지역 문화 발전에 자극을 가하는 역할을 했다. 우선, 1928년 1월 23일 원산관이 개관하자 원산지역의 산양회(山羊會)는 원산관 개관 공연을 계기로 자신들의 작품을 원산관 무대에 올리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산양회가 애초 계획했던 공연일자는 1928년 2월 3~4일이었다. 산양회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는 없고 실제 공연 여부는 지금으로는 불투명하다. 다만 이 단체는 원산에 거주하는 문화인들이 조직한 단체로 짐작된다. 이들은 원산관 개관에 맞추어 ‘예술 동지가 다수 운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기회로 ‘극사상(劇思想)을 민중화(民衆化)시키려

는 예술적 의지를 피력했다(동아일보 1928b).

산양회의 예술적 포부는 지역 문화 단체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 발전 의지와 관련이 있다. 가령 1912년 무렵 이기세는 개성 연극의 개척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유일단을 창립하고, 공연 공간인 개성좌의 건축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다(매일신보 1937a; 1937b). 사실 그의 노력은 유일단과 개성좌 창립 이전부터 지역 사회에 알려졌으며(매일신보 1912a), 이러한 문화적 의욕과 도전 정신은 결국 지역 극장의 건립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건과 상황은 원산에서도 나타난다. 원산의 유지들은 이기세의 모색과 흡사한 시도를 해나갔고, 문화예술 단체인 산양회도 이에 호응하는 형식으로 이러한 시도를 뒷받침했다. 개성좌는 유일단의 실질적 해체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침체와 방황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문화적 주체가 지역 극장의 운영에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실례는 반대로 산양회의 공연 시도가 지니는 의미를 해석하도록 돕는다. 산양회는 이기세나 유일단이 건립 초기 개성좌에 했던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물론 산양회는 유일단이 1~2년 동안 개성좌에 공연 레퍼토리를 제공하는 역할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다만 산양회의 결속과 공연 시도는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당시 지역 문화인의 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⁴⁾

그다음으로, 원산 지역 단체인 TM영화공장의 공연이 개최된 점을 꼽을 수 있다. TM영화공장의 실연부는 ‘남궁운(南宮雲), 주인공(朱仁圭), 강홍순(康鴻順), 김훈(金薰)’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영화공장 창립과 동시에 실연부 제1회 공연’을 원산관에서 개최했다(조선일보 1928). 초창기 원산관은 원산의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극장으로

4) 산양회의 1928년 2월 공연이 실제로 성사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다만 본 논문에서는 원산의 지역 단체가 원산관을 활용하여 문화 활동을 전개하려고 한 점에 대해서 논구하고자 함.

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1930년대 한때에는 원산의 예원을 이끄는 중심지로 자리 잡기도 했다(조선일보 1930).

원산관이 원산지역 예술 발전에 끼친 가장 두드러진 흔적은 원산관의 전속 극단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므로 그 개요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원산관의 자체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마련된 극예부는 결국 WS연예부를 거쳐 동방예술좌·조선연극공장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동방예술좌는 원산뿐만 아니라 함흥에서도 상설 공연을 추진했고, 조선연극공장으로 변모하면서 지방 순회 범위가 함경도 일대와 만주로 확대되었으며, 연극호에 이르면 중앙을 포함하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더구나 조선연극공장은 경향극을 표방한 극단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실제 공연에서 실적을 거두었고, 연극호는 1940년대까지 장수하면서 연극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극단의 기반이 원산관이었다.

2. 문화 교류와 창작의 임시 거점

원산관이 원산 지역 자생 문화의 기반으로 기여한 사례를 ‘산양회’, ‘TM영화공장’, ‘조선연극공장’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면, 외부 극단 혹은 단체의 주선을 통해 문화의 흐름과 예술적 협력을 주도한 사례로는 ‘현성완 일행의 방문 공연’, ‘나운규와 배구자의 합동 공연’, 그리고 ‘극단 고희의 창립 공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개관 직후인 1928년 3월(25일 전후) 현성완 형제와 일행이 원산관에서 공연을 시행했다. 처음에는 현성완 일행의 연극 공연 위주였지만, 25일에 접

어들면서 행사가 동정흥행으로 변화되었다(현성완 일행은 이 행사에 찬조 출연도 한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그리고 중의일보 3사가 후원하는 형식으로 치러진 이 행사에는 연극대회 이외에도 동서음악이 가미되었다. 음악행사에는 독주, 독창, 남도소리, 무도까지 포함되었고, 연극대회는 현성완 형제와 일행이 담당하였다(동아일보 1928d).

1931년 4월 원산에는 나운규와 배구자가 함께 방문했는데, 이를 계기로 원산관에서 배구자 일행의 공연이 펼쳐졌다(동아일보 1931e). 당시는 배구자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펼치던 시절이었고,⁵⁾ 나운규는 일시적으로 인기가 하락하는 시점이었다. 두 사람은 원산에서 조우하여, 갑작스럽게 영화 ‘십년’을 제작·촬영하게 되었다. 작품의 감독은 박정현, 각색은 나운규, 촬영은 이필우가 맡았으며, 나운규와 배구자 주연으로 출연했고, 배구자예술연구소 단원들과 방각사 영화부원들이 참여하였다(동아일보 1931h; 조선일보 1931). 배구자는 순회공연을 수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영화 촬영 기획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이 원산관에서 공연을 하면서 영화제작에 대해 합의하고 촬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영화 ‘십년’의 개봉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원산관이 당대 스타의 만남과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문화사적 역할을 상정하게 만든다.⁶⁾

마지막으로 원산관은 극단 고희의 창립공연장으로 활용된 바 있다. 고희의 전신이자 자매극단인 고려영화협회는 ‘복지만리’ 촬영을 위해 조선 북부 지역과 만주 일대 로케이션을 몇 차례 단행했는데, 그들의 2차 로케이션이 종결되는 1939년 2월 무렵 원산관에서 극단 고희를 창단하고 복선 순회공연에 돌

5) 배구자는 1931년 1월 경성 단성사 공연을 시작하여 연장 공연을 펼친 후, 3월에 안동과 선천 공연을 시행하고, 4월 초순에 원산 공연에 돌입했으며, 4월 중순 이후에는 회령과 청진 공연을 이어갔음(동아일보 1931a; 1931c; 1931d; 1931f; 1931g).

6) 1934년에는 소녀극좌가 원산관 공연을 시행했고, 원산을 중심으로 활동사진 촬영도 겸하였음(동아일보 1934).

입했다(김남석 2010, 400-404).

지역에서 창립 공연을 여는 사례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지만, 고협업의 선택과 결단은 모험적인 측면이 다분했다. 그만큼 원산관은 지역 순회 방문지로 각광을 받는 곳이었고, 그들의 전속 극단이 이미 실행한 바 있는 북선 순회공연 루트가 잘 정비된 거점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나운규와 배우자의 사례를 추가하면, 원산관이 단순한 공연·상영 공간으로만 기능한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생산하는 제작의 장으로도 기능했다고 할 수 있겠다.

3. 지역 문화 창달의 거점 공간

앞서 언급한 6가지 사례는 원산관이 지역 문화 창출의 거점으로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극장 운영은 흥행업의 일종이지만, 극장은 이를 넘어 문화적 교류에 중요한 역할까지 담당하곤 했다. 극장이라는 공간 축조와 배치는 그 자체로 문화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담기는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는 장이 되어야 했다. 원산관은 북선지역에 자생하는 문화의 온상이 되어야 했으며, 북선지역을 흐르는 문화 유통의 매개체가 되어야 했다.

연극과 영화 그리고 예술 창작과 교류의 측면에서 본다면 원산관의 구축은 원산과 북선지역의 집단적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기도 했다. 원산관의 축조로 인해 자생문화가 성장하고 외부 문화가 수용되는 현상을 원산주민들이 목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원산의 문화적 정체성이 공고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산관이 극장으로서, 즉 문화예술의 교류와 매개 그리고 담론의 장으로는 그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또 다른 기능인 공회당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보인 점에 있다고 하겠다.

IV. 상업 세력의 공간 지배와 이익 위주의 경영

공회당 겸 극장이라는 원산관의 양면적 역할은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원산관에서는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각종 행사가 개최된 바 있다. 원산관에서의 열린 문화 행사로는 독주회, 연주회, 명창대회, 서커스 행사, 스포츠 경기, 역기대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원산관은 설립 당시의 취지대로, 원산 지역의 공공단체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원산관에서 열린 행사로는 '채해동포구제동정연주회', '동정 연주회', '이재민 돕기 행사' 등의 자선행사를 비롯해서, '각종 시민대회' 등의 각종 공식 집회, 그리고 '종두 점종'이나 '건강 심사' 등의 국가 의료 시책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강연회, 좌담회 등의 행사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밖의 행사로 '양조품리미회'나, '양계품평회'가 열렸는데, 이러한 행사는 농민들과 관련된 행사로 볼 수 있다.

1920~1930년대 공회당 용도는 보통 네 가지 정도로 분류되었다. 첫째는 강연회 일반, 둘째는 회사와 주주 총회 등의 사업 관련 행사, 셋째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연예회(전람회나 연회 포함), 넷째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연예회였다(동아일보 1920).

앞에서 정리한 원산관의 사용처를 이 네 가지 용도에 대입하면, 네 가지 사용처가 고루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첫째 목적인 강연회에 대한 활용 사례는 그다지 많이 발견되지 않고('신문 강연회'나 '좌담회'), 회사와 주주총회 등의 사업 관련 행사는 상인 조합 행사에 국한되어 있다. 시민대회나 노동자 대회가 간간히 개최되었지만, 다른 극장에 비해 그 빈도수가 낮다고 해야 한다. 원산관의 주요 용도는 영화 상영이었고, 문화적 수의 창출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산관은 대체로 상업적 용도인 극장(혹은 영화상설관)에 국한되어 운영되었고, 공회장이라는 본래의 용도 활용은 상당 부분 제한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자 원산관의 상업적 운영을 파행적으로 여기는 여론이 생성되었다.

“우리 원산이 과거에 있어서 무슨 시설도 하나도 업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는 일 업시 발전을 말함은 넘우나 연목구어가 아닌가 합니다만 원산의 시설이라면 다만 원산관 가튼 것은 삼만 원이라는 거액을 드려 건축하였지요. 예술은 부정한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어떤 정도까지는 유익보다는 해독이 만타는 말이외다. 사업에도 지방장제에 따라 선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것을 순전히 영리 회합 장소로만 사용치 말고 지금이라도 공회당 가튼 것으로 공개를 하여서 최초 건축 당시의 공회당을 겸용한다는 사실에 부합하도록 하여서 우리 일반의 각성 운동에 좀 더 이용케 함이 어떨는지요.”⁷⁾

원산중등학교 기성회장 이가순 주장의 요점은 원산관의 공익성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원산관은 공사비만 2만여 원이 들어갔고, 개장과 운영을 위해서 총 3만여 원이 들어간 대규모 시설이었다. 주주들의 입장에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상업시설로 운영하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공익성을 대표하는 공회당으로의 전용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가순은 이러한 운영 방식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같은 자리(좌담회)에 참여했던 원산관의 사장 노기만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 선생(이가순: 인용자)은 공맹시대의 두뇌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석상에 오신 이들이 대부분 원산관의 주주입니다만 이것이 원산에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방에든지 있는 것이며 우리가 하지 안었으면 외인이라도 하얏을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에게 그만한 손해입니다.”(동아일보 1931b)

노기만의 답변은 원산관에 대한 원산 지역민들의 생각을 함축하고 있다. 일단 노기만과 상당수의 유지들이 원산관의 주주로 참여한 목적이다. 첫째는 원산의 지역 발전과 문화 보급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외인들의 설립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여기서의 외인이라면 원산주민 이외의 사람들을 뜻하는데, 특히 일본인을 가리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즉 원산관은 원산지역 조선인들의 공익과 자주성을 위해 설립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주변 지역에서 극장이라는 공간이 설립되고 있는 사정을 다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원산관의 설립이 타 지역의 극장과는 달리 대지주 혹은 자본가의 일방적인 의견에 의해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평양의 금천대좌가 자본가의 힘에 의해 설립되었고(김의경, 유인경 2008, 293-294), 지역 여론을 통해 연극 인프라를 조성하려 했던 개성에서도 결국에는 개성좌를 일본인 부전중치(富田重治)의 자본으로 설립하고 말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매일신보 1912b; 1930), 원산지역 유지들의 결속과 단합은 주목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원산의 지역 유지들은 인근 지역의 극장 설립 과정을 참조했고, 그 과정을 의식하여 원산관 건립에 관련된 일련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이가순과 노기만의 대화를 복합적으로 살펴 보면, 초창기 원산관은 수익 사업에 주로 매진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공회당은 ‘일반 대중의 회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뜻하므로, 무료 대관의 의

7) 밑줄은 인용자가 원산에서 열린 순회 좌담에서 이가순이 주장한 내용 중에 본 논문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한 것임(동아일보 1931b).

미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회당 운영은 경제적 손해가 적지 않은 사업으로 인식되어, 부호들 중에는 투자나 기부를 저어하는 현상을 낳기도 했다.

물론 원산관에서 공익성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영화 상영과 공연 공간 창출에 치중했기 때문에, 애초의 설립 의도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노기만도 이가순의 지적(유익보다 해독이 많다)에 정확하게 응대하지 못하고,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확인할 따름이다.

이러한 상황은 원산관 경영진의 경영방침에 의해 초래되었는데, 경영진을 구성하는 상인들이 원산관이라는 공간을 자신들의 권력을 통해 전유한 사례라 할 것이다. 공간 전유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에 의한 대표적인 지배 방식으로, 원산관 용도 변환과 독점은 원산 상인(유지)의 특권과 지배력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원산관에 대한 불만은 실제적인 대안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가령 1929년 6월에는 원산 개항 50주년 기념으로 공회당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기사로 제출되기도 했다(매일신보 1929b). 이 기사에 의하면 원산에는 공회당이 없다고 전제되고 있는데, 이것은 원산관을 공회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통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원산관이 공익적 목적보다는 경영상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운영 형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 원산관은 공회당이 아닌 극장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공회당에 대한 필요는 다른 형태의 의견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1936년 11월 기사에는 ‘대공회당’ 혹은 ‘신공회당’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공회당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실려 있다(매일신보 1936). 이 기사에 따르면 신공회당은 ‘경정 공설시장’ 자리에 들어설 예정이고(시장을 해안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

획), 공비는 총 22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새로운 공회당은 3층 건물, 800평의 건평,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었는데, 새로운 공회당을 짓는 이유를 ‘약진 원산에 상응한 근대 문화적 굉장한 대전당을 건설하는 것에 두고 있다. 새로운 공회당은 기존의 원산관을 크기와 외형에서 압도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셈이다. 관련 현안을 다루고 있는 동아일보 기사 역시 원산에는 공회당이 없다는 논조를 되풀이하거나(동아일보 1936a), 공회당 건설이 오랜 현안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동아일보 1936c).

하지만 새로운 공회당의 건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941년에 원산공회당에 대한 새로운 플랜이 제출되었다(매일신보 1941). 이 계획에 따르면 원산공회당은 대홍교 곁의 2천 평에 들어설 예정이며, 연와 2층 건물로 관련 설비(대소집회실)를 갖춘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사들과 별도로, 기존 ‘공회당’(말 그대로 원산관이 아니라 공회당으로 지칭)에서 열린 행사를 소개하는 기사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1935년 원산공회당에서 열린 ‘목탄품평회’(동아일보 1935a)나 1931년 ‘양계품평회’(동아일보 1931i)가 그것이다. ‘양계품평회’에 대한 기사는 매일신보(1930)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는데, 이때에는 원산에 공회당이 있는 것처럼 기술되었다.

이러한 인식 차이와 혼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1928년 5월 23일자로 원산관은 정식 허가를 받았지만, 그 용도는 ‘극장 연극 및 활동사진, 연극 및 활동사진 기타 공중 집회를 위한 극장과 도구의 대부’(中村資良 1923)였다. 설립 허가상으로 원산관은 정식 공회당이 아니며, 극장을 허가받았지만 비공식적으로 공회당 기능을 담당하겠다는 의도만 투영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물이 원산 시민들에게 점차 ‘공회당이

아닌 사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원산에는 공회당이 존재하지 않'거나 '새로운 공회당을 건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게 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이기순 지적의 연장선상에 놓인 여론인 것이다. 이러한 여론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조선인 사회의 공식성과 공유 개념을 앞세웠던 원산관은 사라지고 사적 소유의 극장만 남은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V. 조선-일본의 대립에서 공공-사익의 균열로

원산은 일본인에 의해 개항된 도시로 그들의 쓸모(교역과 방어)에 의해 도시가 개발되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할된 상태로 조성되었다. 본래 원산이었던 '원산진'과 새로 개발된 '원산항'이 그 두 영역이다. "원산진은 종래의 조선인 시가의 명칭이고 원산항은 내지 개항장 시가의 명칭으로 구적전천의 하상(河床)을 경계로 두 시가지가 서로 접해 있"(조선총독부 1915, 150-151)는 형세를 이루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항 당시 원산에 일본인 거류지를 조성할 때부터 어느 정도 의도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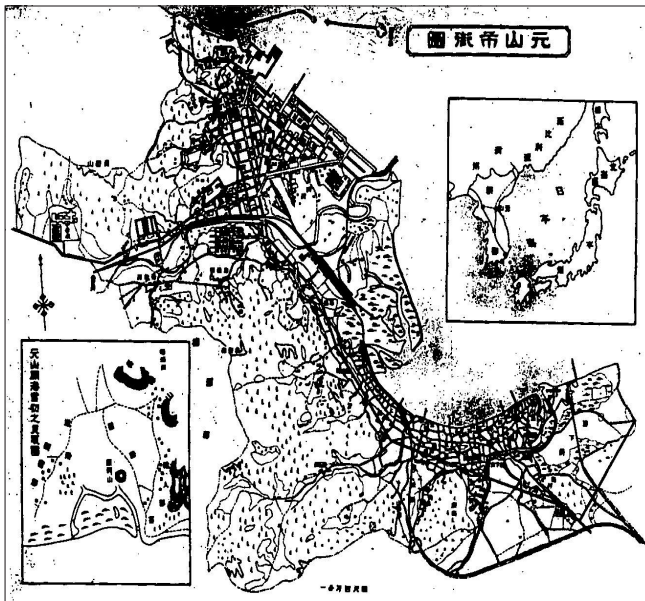
〈그림 1〉에서 원산을 남북으로 나누는 기준은 '적전천'이다. 적전천을 기준으로 북측은 전형적인 항구 도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도로가 직사각형 형태로 뻗어 있고, 부지들은 건물들로 들어차 있으며, 항구 시설까지 포함하는 변화한 도시 중심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반면 적전천 남측은 세로로 길게 뻗은 도로를 중심으로 옹색한 부지가 펼쳐져 있고, 상대적으로 덜 변화하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여러 모로 보건대, 원산의 중심은 적전천 북측 일본인 시가지였다.

이러한 도시 구조는 낯설지 않다. 왜냐하면 조선의 개항 도시는 일본인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김주관 2012, 266-271). 도시의 중심에 위압적인 관공서(주로 경찰서)를 건립하고 일본인 거주 지역을 별도로 책정하여 그곳 신시가지에는 '일본식' 건물을 주로 짓는 정책을 유지했으며, 반대로 구시가지로 지칭되는 조선인 구역에는 '조선식'으로 건물을 건축하

여 그 차별성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식민지 조선에서의 계급 관계를 도시 공간에 반영하는 기초를 지켰다(박희진 2013, 302-304). 이러한 도시 구조는 북한 지역 내에 있던 도시들, 예를 들어 함흥, 청진, 원산, 사리원, 강계, 남포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리화선 1989, 103-105; 박희진 2013, 303).

일본은 식민지 도시 설계를 바탕으로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피지배인들에 대한 통치 이념을 물리적으로 가시화하였다(김백영 2005). 이렇게 분리된 두 공간은 당연히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으로 분할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인 거주지는 안전, 인종적 편견, 문화적 선호도, 사회적 지위, 불평등한 부의 분

그림 1_ 1927년 원산 지도



자료: 양상호 1994, 107.

배 등의 측면에서 조선인 거주지와 격리되었다(허병식 2013, 252).

원산관이 조선인의 집단 주거지인 남촌 거리가 아니라, 식민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공간인 북촌에 건립되면서, 이 극장은 식민-피식민, 안전-위험, 일본-조선, 세련-야만, 지배층-피지배층, 부-가난, 새로움-오래됨, 근대-전근대의 경계를 체험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아울러 수행했다. 자신들이 원하는 공연과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조선인들은 북촌(동) 거리로 들어서는 수밖에 없었으며, 그때마다 남촌에 비해 잘 정비된 도로와 빼곡히 들어선 관공서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러니하게 자신들이 향유하는 조선의 문화를 관람해야 했다.

하나의 도시를 이질적인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체 혹은 다중체로 보는 관점에 따른다면, 북촌 지역에 형성된 원산관은 인간과 비인간(건물과 시설), 주요 종족과 주변 종족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어울려 형성된 아상블라주(assemblage)의 관계로 파악된다. 아상블라주는 도시 내에서 새로운 요소들의 연결이나 결합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배치나 배열을 뜻한다. 도시 내의 현상적인 요소들은 일관된 성격이나 원리로 정리되기 어렵고, 실제로는 이질적이고 다종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복합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보면 원산관은 아상블라주를 통해 형성된 다양체(multiplicity)라고 할 수 있다(홍민 2012, 35-37).

이러한 복합적 문화 공간 내에서, 원산관은 두 개의 이질적 문화를 교섭 내지는 길항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일반적으로 영화 상영이나 연극 공연도 이러한 관람 효과를 부추겼겠지만, 원산관이 집중했던 전통 연희의 공연인 경우에는 이러한 관람 효과를 더욱 대비시켰을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명창대회다. 원산관은 개관 직후부터 판소리 관련 행사를 치른 바 있고, 다른 극장의 대관사업과는 차별적으로 이동백, 박녹주

등의 명창을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명창대회를 개연했다. 이들은 대부분 경성에서 활동하는 판소리 예인들이었지만, 원산관의 초청을 1년에 한 번씩 수용하여 원산관을 방문하곤 했다. 명창대회가 원산관에서 빈번하게 열렸다는 점은 원산관이 조선인 관객을 다분히 염두에 둔 공연을 펼쳤다는 사실을 증빙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명창대회에는 권번들의 찬조 공연이 어우러지곤 했다. 가령 1937년 원산관 명창대회에는 춘성권번과 원산권번의 기생들이 함께 공연한 바 있다. 또한 원산관에서는 권번의 자체 공연도 이어져서, 1937년 9월에는 기금 마련을 위한 원산권번의 연주회가 개최된 바 있다(동아일보 1937).

조선인 거리에서 일본인 거리로 걸어 들어가 원산관에 이르고 그곳에서 일본인 문화와는 대조적인 명창대회를 관람하는 한 원산부만을 상상한다고 할 때, 이 관람객이 느끼는 소회(素懷)는 사뭇 이중적일 것이다. 관람객은 남촌 거리와 대비되는 북촌 거리의 세련됨과 문화적 인프라에 놀라면서도, 이에 비해 낙후된 조선의 처지에 대해 재고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재고는 조선문화에 대한 애착이나 보존 욕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해야 한다. 분명 원산은 일본에 점령된 조선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북촌은 조선 전래의 원산과 겹쳐지는 일본 문화의 영토였다. 하지만 그 일본인 지역 내에 조선의 극장이 자리 잡으면서 두 문화적 영역은 다시 중첩되어 새로운 문화적 영토를 형성했다. 이러한 문화적 영토를 통해 두 종족의 문화는 공존했고, 강하게 길항하면서 보존되었다.

원산관은 원산에서 일본인 문화에 대항하는 조선인 문화의 상징으로 출발했고, 그로 인해 원산이라는 대도시의 문화적 균열과 갈등을 체현하는 역할을 우회적으로 담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우회적 역할이 더 높은 차원의 상업성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러한 대비와 균열, 경쟁과 보존의 역할을 담당하고 기획해야 할 주도층이 상

인들이었으므로, 점차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구보다는 경제적 실익이나 이익 추구의 경영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원산관이 건립 당시 일본과 조선이라는 식민과 피식민의 경계에서 설립되었다면, 1930년대를 건너오면서 원산관은 다시 '사적 이익' 대 '공공 선', 혹은 '상인 계층' 대 '일반 대중'의 접점을 확인하는 경계가 되었다.

VI. 공공성의 축소와 식민지 극장의 한계

원산관은 1927년 5월 원산 유지들의 집합체인 '원산시영회'의 발의로 창립되었다. 원산시영회 멤버는 '주식회사원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경영진과 주주로 참여하여, 원산관의 입찰과 공고 그리고 사업 발주를 지휘했다. 특히 사장 노기만과 전무취체역 한치항 그리고 이사 한군필 등이 사업 최전선에서 원산관의 발의부터 준공까지를 책임졌다. 이들은 원산을 대표하는 상인이자 유지로, 미곡상연합회와 원산상의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던 지역 사업가였다. 이들은 원산의 지역 극장 창립 필요성을 절감했고, 조선인의 자본을 모아 다목적 공연장으로서의 원산관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산관은 조선인의 자본으로 수립된 '조선극장'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자본으로 지역 극장이 설립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할 때, 원산 지역은 조직적으로 이러한 필요성을 실천한 경우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산상의를 비롯한 지역상인 조합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은 일종의 문화적 인프라를 통해 원산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원산관을 조선인 밀집 거주 지역인 남촌동이 아니라, 일본인 거주 지역이자 관공서 집중 구역인 북촌동에 설립하였다. 남촌동의 도로와 하수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하면, 이들의 선택은 유리한 공연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지역의 극장들이 일본인 거주지, 즉 새로운 시가지에 설립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는 일본인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원산의 경우에는 순수 조선 자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일본인 거주 지역에 극장을 개설했다.

물론 북촌동과 남촌동은 먼 거리가 아니었고, 실제로는 거의 인접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1929년 2월 남촌동 화재로 인해 원산관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이러한 위치를 증언한다. 원산과 주변 건물들은 피해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피해 구역은 원산의 상가와 고급 사택이 밀집한 중심 구역에 해당했다. 전략적 선택을 통해 원산관은 원산의 요충지에 자리 잡을 수 있었고, 주변 인구를 문화적 관람객으로 바꾸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했다.

실제로 원산관 준공이 마무리된 시점은 1927년 12월이고, 원산관의 낙성식은 1928년 2월에 시행되었다. 낙성 초기에는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 원산관의 다목적 공연 방식을 홍보하고자 했다. 원산관은 처음부터 공회당 겸 극장으로 구상되었고, 이러한 겸용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원산관은 점차 연극과 영화 상영 공간으로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그것도 193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영화 상영이 절대적인 주를 이루었다.

영화관으로서 원산관의 입지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원산관 창립 초기부터 영화 상영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31년에 들어서면 변사와 악사, 그리고 기사가 어우러진 상설영화관으로 확고하게 정착, 운영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지역민들에게 원산관은 상설영화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된다. 원산관의 기본적인 운영 방침은 영화상영관으로 굳어지는 인상이다.

그러면서 원산관은 공회당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점차 소실했다. 표면적으로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근대사회가 추구하는 평등한 개인과 교양의 혜택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화 상영과 문화 행사(입장료 있는 연예회) 개최에 집중하며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운영 형태를 고수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고, 원산부 내에는 새로운(혹은 용도를 달리하는) 공회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공회당의 신설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기에, 원산은 신공회당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의 1930년대 내내 끌고 가게 된다. 그 이유는 부지 조성과 용도 확정, 그리고 이에 따른 재원 확보의 논란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다시 원산관의 운영 방식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원산관은 공회당과 극장이라는 두 가지 공간이 원산 내에 부재하거나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바탕으로 건립되었다. 그럼에도 원산관이 상인 조합 혹은 특정 유지의 취향(이익)에 맞게 용도 변경되면서, 원산부민들은 공적 집회와 교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보완 해결할 방안을 찾게 된 것이다.

원산관의 이러한 문제는 곧 일제강점기 극장 혹은 공공 공간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많은 지역의 극장들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함께 담지했던 이유도 재삼 확인된다고 하겠다. 이른바 공회당이 내포하고 있었던 공공성의 확보는 이를 활용하는 집단 내의 동질성을 확인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고 이른바 신분제 질서를 대체하는 근대사회의 자유로운 개인의 위상을 보장하는 기능을 했다. 원산관은 일본인과의 차이, 혹은 식민문화와의 대결에서 조선인과 피식민지인이 가까이 선택했던 모험이자 도전이었지만, 특정 목적과 선도 주체의 용도 변경으로 인해 또 다른 차별과 좌절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균열을 야기했다. 이에 조선(인)사회는 다시 한 번 공공선의 실현과 동질성의 확인

그리고 자유로운 개인의 위상 보장을 위해 새로운 공간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공회당이 자 공공기관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해야 했던 극장의 운명을 보여주는 유효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 고동환. 2009. 조선후기 개성의 도시구조와 상업. 지방사와 지방문화 12권, 1호: 341-344.
- 김남석. 2010. 조선의 대중극단들. 서울: 푸른사상.
- _____. 2012. 인천 애관 연구. 인천학연구 17호: 400-404.
- 김백영. 2005.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력과 도시 공간의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김의경, 유인경. 2008. 박노홍의 대중연예사. 서울: 연극과인간.
- 김주관. 2012. 공간구조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개항도시의 식민지적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2호: 266-271.
- 동아일보. 1920. 공회당 사용 규칙. 7월 11일, 2.
- _____. 1922. 함흥 공회당 계획(計畫). 10월 6일, 4.
- _____. 1923a. 원산로동이사회(元山勞働理事會). 5월 7일, 4.
- _____. 1923b. 함흥(咸興) 동명극장(東明劇場) 상량(上樑). 10월 26일, 6.
- _____. 1925a. 원산각화대회 상품은 황우. 2월 11일, 3.
- _____. 1925b. 상품진열분관. 3월 20일, 3.
- _____. 1925c. 원산춘계중두. 5월 31일, 5.
- _____. 1926a. 원산시영회(元山市榮會) 창립. 2월 23일, 4.
- _____. 1926b. 동북지방. 1926년 4월 26일, 4.
- _____. 1926c. 원산 유희관 '피아니스트' 절도 상습 검거. 12월 25일, 5.
- _____. 1927a. 원산시영(元山市榮) 정총(定總). 5월 26일, 4.
- _____. 1927b. 원산시민운동 매축 준공 기념. 6월 8일, 4.
- _____. 1927c. 원영회(元榮會) 창립. 9월 14일, 4.
- _____. 1927d. 원산평의(元商評議) 개선(改選). 10월 15일, 4.
- _____. 1928a. 원산관 낙성 구원단(舊元旦)에 낙성식(落成式). 1월 26일, 4.
- _____. 1928b. 산양회(山羊會) 공연. 2월 1일, 4.
- _____. 1928c. 금지된 기념식. 2월 17일, 4.
- _____. 1928d. 작일(昨日) 오후(午後)부터 부민대회(府民大會) 개최. 3월 24일, 4.
- _____. 1928e. 고위당위(苦學堂爲)해 음악과 연극. 3월 27일, 4.
- _____. 1928f. 원산미곡상(元山米穀商) 총회. 11월 20일, 4.
- _____. 1929a. 시민협회 앞선으로 부분적 해결 서광. 2월 16일, 2.

- _____. 1929b. 부분해결도 상의(商議) 즉 불응(不應). 2월 21일, 2.
- _____. 1929c. 동북지방(東北地方). 2월 24일, 4.
- _____. 1929d. 원산상의원(元山商議員) 후보. 9월 27일, 3.
- _____. 1930a. 원산(元山)에 조선인기관으로 중학기성회 조직. 9월 5일, 3.
- _____. 1930b. 동아일보 독자우대. 11월 12일, 6.
- _____. 1931a. 배구자예술연구소 혁신 제 일회 공연. 1월 17일, 5.
- _____. 1931b. 주요도시 순회 좌담(133). 2월 21일, 6.
- _____. 1931c. 본보 안동현지국주최로 배구자일행 공연. 3월 9일, 3.
- _____. 1931d. 선천지국(宣川支局) 주최 배구자무용 성황으로 종료. 3월 18일, 3.
- _____. 1931e. 배구자일행(裴龜子一行) 본보 독자 할인. 4월 2일, 3.
- _____. 1931f. 본보 독자 우대. 4월 18일, 3.
- _____. 1931g. 배구자공연에. 4월 28일, 3.
- _____. 1931h. 배구자, 나운규 <십년>을 촬영. 5월 6일, 4.
- _____. 1931i. 원산 안변 덕원 연합 양계품평회 개최. 10월 28일, 6.
- _____. 1931j. 원산에 대화(大火) 손해 사만원. 12월 25일, 7.
- _____. 1934. 허영에 띤 소녀 절도(竊盜)타파체(被逮). 11월 2일, 3.
- _____. 1935a. 목탄품평회(炭炭品評會) 원산공회당서. 2월 7일, 5.
- _____. 1935b. 궁민구제음악회. 3월 12일, 5.
- _____. 1935c. 밀회 중의 소년소녀 순사에게 발견. 9월 22일, 3.
- _____. 1935d. 원산상의(元山商議) 역원(役員) 결정. 10월 1일, 5.
- _____. 1936a. 원산공회당 신축. 2월 29일, 7.
- _____. 1936b. 네거리 집(集). 6월 26일, 6.
- _____. 1936c. 원산공회당 신축. 8월 8일, 5.
- _____. 1937. 원산권번(元山券番)에서 현금대연주회. 9월 29일, 5.
- 매일신보. 1912a. 연극계에 가일감(伽一鑑). 5월 6일, 3.
- _____. 1912b. 연예계: 이기세. 9월 6일, 3.
- _____. 1924. 함흥의 어린이날, 동명극장에서 성대하게 거행. 5월 4일, 5.
- _____. 1929a. 원산파업 영향 거익심대(元山罷業 影響 去益甚大). 2월 4일, 3.
- _____. 1929b. 원산 개항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공회당 건설 계획. 6월 8일, 3.
- _____. 1930. 작년중 경인(京仁) 각 극장 파천황의 호성적 하루 평균 하루 평균 일천삼백여원 수입. 6월 26일, 2.
- _____. 1931. 원산 덕원 안변 연합의 양계품평회(養鷄品評會) 개최. 10월 30일, 3.
- _____. 1936. 원산공회당 신축구체안(新築具體案) 성립 명춘(明春)부터 공사 착수. 11월 29일, 5.
- _____. 1937a. 이기세, 신파극의 회고(상) 경도서 도라와 유일단을 조직. 7월 2일, 8.
- _____. 1937b. 이기세, 신파극의 회고(2) 혼자서 팔면육비(八面六臂)의 활약. 7월 3일, 6.
- _____. 1941. 원산공회당 현실? 명년에 30만원으로. 11월 27일, 3.
- 박희진. 2013. 함흥시 도시공간의 지배구조와 탈주체의 삶. 북한연구학회보 17권, 2호: 302-304.
- 양상호. 1994. 원산거류지(元山居留地)의 도시공간(都市空間)의 형성과정(形成過程)에 관한 고찰(考察). 건축역사연구 3권, 2호: 107.
- 오미일. 1994. 1910~1920년대 공업 발전 단계와 조선인 자본가층의 존재 양상. 한국사연구 87호: 196-197.
- 이광희. 2005. 일제 강점기 도시행정의 이중성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43권, 4호: 285-288.
- 이민영. 2012. 대중극의 정치학. 박영호의 전략. 한국연극학 47집: 95-120.
- 이승희. 2010. 공공 미디어로서의 극장과 조선민간자본의 문화정치. 대동문화연구 69권: 209-220.
- 이호걸. 2010. 식민지 조선의 문화사업 극장업. 대동문화연구 69권: 175.
- 인천개항이십오년기념회. 1908. 인천개항이십오년사. 조선일보. 1927a. 원산관 창립총회 간부 기타 선정. 5월 24일(朝), 1.
- _____. 1927b. 원산관(元山館) 건축 입찰. 8월 30일(夕), 4.
- _____. 1927c. 원산관(근) 준공(竣工). 12월 18일(夕), 4.
- _____. 1928. 원산 TM영화공장 실연부 공연. 10월 12일(夕), 4.
- _____. 1929. 원산 남춘동 화재. 2월 10일(夕), 5.
- _____. 1930. 원산 예원(藝苑) 독점한 원산관. 11월 2일(夕), 3.
- _____. 1931. 배구자 출연 <십년(十年)>을 촬영, 금일 중순에 봉절(封切). 5월 5일(夕), 5
- 조선중앙일보. 1933. 자동차 주인이 음독 자살. 11월 14일, 4.
- 조선총독부. 1915. 조선철도여행안내.
- 하원호. 2005. 개화기 원산항의 한일 간 교역과 그 성격. 동양학 38권: 151-170.
- 허병식. 2013. 휴양지의 풍경. 한국문학연구 44호: 252.
- 홍민. 2012. 북한연구에서 '공간' 이해와 도시사의 가능성. 북한학연구 8권, 2호: 21-37.
- 황병주. 2007. 식민지 시기 '공' 개념의 확산과 이해성. 사회와역사 73호 7: 5-44.
- 황병주. 2010. 식민지기 공적(公的) 공간(空間)의 등장과 공회당(公會堂). 대동문화연구 69권: 277-278.
- 中村資良. 1923.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경성: 동아경제시보사.

- 논문 접수일: 2015. 4. 28
- 심사 시작일: 2015. 5. 11
- 심사 완료일: 2015. 5. 18

요약

주제어: 원산, 원산관, 지역극장, 공회당, 상인, 나운규, 배우자

본 논문은 지역에 생성된 문화적 거점 공간과 원산관의 예술적 혹은 상업적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구하고자 했다. 원산관은 ‘식민지인으로서의 한국인’과 ‘한국에서 거주하는 일본인(지배층)’ 사이의 문화적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다. 원산관은 1927년 원산에 건립된 극장이다. 원산관은 기본적으로는 극장이었지만, 공회당의 기능도 겸하고 있었다. 원산의 상인 세력이 주도하였는데, 이러한 상인 세력에는 노기만, 한군필, 김경준, 한치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인들은 조선인을 위한 극장 겸 공회당을 건립하기

로 합의하고, ‘원산시영회’와 ‘주식회사원산관’을 차례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건립된 원산관은 기본적으로는 상업적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상업적 공간으로의 활용은 193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가속화되었고, 이에 따라 원산에서는 공회당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원산관은 조선인의 공간을 위해 조성한 극장이었지만, 이러한 용도는 결국 상업적인 이익에 의해 희석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